

'소라게 짬' 권상우 "감독님이 좋다 했는데..."

등록 2026.01.07 19:05:00



[서울=뉴시스] 배우 권상우가 7일 방송하는 tvN 예능 '유 퀴즈 온 더 블럭'에 게스트로 출연한다.

(사진=tvN '유 퀴즈 온 더 블럭' 캡처) 2026.01.07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신지아 인턴 기자 = 배우 권상우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때문에 강제 입대했다고 말한다.

그는 7일 방송하는 tvN 예능 '유 퀴즈 온 더 블럭'에 게스트로 출연한다.

권상우는 "아내와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 적 있었다"며 "아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'아닌가' 이거다"라고 한다.

그는 "'여보 뭐 하자' 하면 아내가 뚨름 들인다. 그럼 '아닌가' 한다"고 말한다.

유재석은 "(드라마 '슬픈연가' 한 장면인) 소라게 짚을 본인이 보면 어떠냐"고 묻는다.

권상우는 "밤샘 촬영 끝내고 스키장에서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 찍어야 됐다. 내 전 애인이 친구의 연인이 된 모습을 보고 슬프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모자를 내리면서 사이로 눈물이 보인 것"이라고 말한다.

그는 "감독님이 컷 하자마자 딱 좋다고 하셨다"며 "그랬는데 재밌는 캐릭터가 돼 있었다"고 한다.

이어 권상우는 아이들 일화를 공개하며 "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롤모델도 없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아들을 생각할 때도 측은함이 있었다. 딸을 키울 때보다 아들을 키울 때 어리숙한 면이 많았다"고 말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ja29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